



외대학보

진리 평화 창조

1997년 12월 8일(월) 제704호 창간 1956년 4월 11일 <주관> 발행인 안병만 편집인 권진환 편집장 김태형 인쇄인 홍운주 외대신문사 961-4151, 962-7120(주) 외대학보 학생기자실 (서울) 961-4152, 4408 FAX 961-4183 (음성) 0335-30-4112 서울시 중대문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오현면 향신리 산 89

15일 총장선거 후보 2명 최종확정 노동조합, 학생·직원 참여없는 선출방식에 반발

교수회의는 지난 3일(수) 서울배움터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총장후보예비선거를 진행했다. 총 307명의 교수가 참여한 이번 선거의 결과 양명만(105표, 행정학과) 교수, 조규철(78표, 불교학과) 교수, 서재범(58표, 경제학과) 교수, 이항복(45표, 독일학과) 교수, 임영석(16표, 경제학과) 교수 등 5명이 총장후보 자격을 얻게 됐다. 교수회의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8일)과 후일의 선거공약을 담은 청원서를 이어서 제출을 마감하고 이를 10일(수)을 전후로 교수들에게 공람할 예정이다. 이어 오늘 15일(월) 결선 투표에서 두명의 후보가 최종 확정되고 이중 1명을 재단이 임명한다. 선거

운동과 관련해 교수회의회장 정규호(포스트강아지) 교수는 조용한 선거를 위해 유인물을 배포나 마이클을 사용한 단체유세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총장 선거를 둘러싸고 직원과 학생의 문제제기도 잇달아 진행되고 있다. 직원노동조합은 96년 대학당국과 '총장후보 선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상호 노력한다'는 단체협약 123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지난 2일(화) 안종장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안종장은 "지금 한사람의 총장선거 임무보지므로 입장 표명이 어렵다"고 노조측에 구두로 전달했다. 이어 노조는 다음날인 3일(수) △10년 이상 재직인 교수로 한정된 과외교과

범위 확대 △대학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의 선거과정 △재정으로 부터의 독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오늘(8일) 후보 50인에게 직원·현 총장 선거제도의 관련한 공개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장진 직원노동조합장은 "대학 내에서 민주적 절차를 가져지 않고 힘있는 집단의 의견만으로 선출된 총장이 타 구성원들과 협력적 관계를 이끌어 내기는 힘들 것"이라며 하내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역설했다. 반면에 학생들은 학생회 이월관개로 적극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서울 배움터 32대 총학생 회장 함선

자 오승준(상경·경영 4)은 "총장선거에 대한 분위기가 학생들 사이에서 무르익지 않아 학생참여를 담장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그러나 총장 후보에 대해 학생들의 요구를 전달하는 작업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여론에 대해 정규호 교수는 "이기주의의 그룹들의 발언이 난무하면 학교운영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학교부담을 불가방식"을 제창하면서, 또한 본보기 재단 직원 학생이 참여하는 총장후보자 공개토론회에 대해서도 "교수와 직원,학생이 같이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반대했다.
허윤수 기자



총장은 교수들의 대표가 아닌 교수·학생·직원으로부터 구성된 학원의 대표이다. 그러나, 우리 학교는 지난 3일(수) 교수들만의 투표로 양명만 후보 등 5명을 선출하였으며, 오는 15일(토) 2명으로 확정짓는다. 그러나 최종 임명권은 재단(학교법인)이 행사함에 따라 총장을 뽑는 선거가 아닌 '총장후보'를 뽑는 선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임승희 기자



변화와 혁신의 눈

▲한비야 소나기가 내리고 난 후 땅은 더욱 굳어지고 하늘은 맑아진다. 지표면의 수증기가 모여 구름이라는 비단을 만들고 그 비단 내부에서 부딪치는 응결핵의 치열한 소나기를 만들어 낸다. 강점의 매들이 얹혀있는 이와의 거친 싸움 이후 둘은 친구가 되는 경우도 많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아니면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감정을 싸이지 못한 치열함이 결투(?)를 낳기도 한다. 치열함이란 의지의 양적성장을 가져오고 그것은 집적인 발전을 일컫는다.
▲올해 선거는 유난히 치열했다. 작년 8·15 연세대 통일 투쟁과 올해 한총련 출범식을 겪으면서 학생운동이 심판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해체나, 새로운 연합체 구성이나 하는 얘기가 나왔다. 이번 기회에 학생운동의 씨를 말리겠다고 덤벼드는 공안기관과의 한판 승부도 한 몫 했다. 우리 학교만 해도 선거기간중에 교정이 노란색, 빨간색을 입은 선거운동원들의 움직임으로, 공약을 외치는 목소리들로 현란했음을 정도다. 한총련을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자기반성의 치열함이었다.
▲하지만 빨리 출출하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비운동권이 약진했으니 학생운동의 주류가 되자했으니 하는 생각은 하지 말기로 하자. 문제는 얼마나 내부의 토론에서, 정권과의 싸움에서, 무엇보다 학생들의 만능과 혁신의 요구형에서 치열하고 총성했던가라는 지점이다. 얼마전까지 '나는 한총련이다'라고 했던 그들이 선거기간에 보였던 한총련에 대한 혁신과 부정의 모습은 과연 혁신을 위협이었던가. 표를 의식한 회피였던가라는 질문에 우린 얼마나 뒷맛을 걸치는 경우는 드물었다. 후삼적 구호와 상호비방이 넘쳐나는 속에서 이기기 위한 치열함이고 혁신을 위한 치열함에는 얼마나 총성했던가 되었고 싶다.
▲변해야 할 지점을 남보다 먼저 찾는 이는 변화지 말아야 할 원칙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선거의 승패를 위해 한총련이 이야기되어서는 안된다. 한총련의 혁신은 해체나 아니나니 문제를 넘어 한총련에 대한 논의를 학생들과 함께하고, 그래서 질적 변화를 도모할 때만이 가능하다. 이번 선거에 치열함을 불어넣은 힘이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때서운 '눈'이었다면, 이제는 그들의 눈을 모아내야 한다. 그것이 또 한명의 기회를 준 학생들에게 대한 보답이자 당연함이다.
김태형

총학생회장 류종렬군 출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지난 10월 16일(목) 서울 배움터 31대 총학생회장 류종렬(상·영아 4, 재학) 군이 △국가보안법 위반 및 특수 공무집행 방해·자사 도망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화염병·폭력에 관한 법률 등 6가지 법률 18개 조항 위반 혐의로 학교 앞에서 강제 연행된 뒤, 지난 5일(금) 열린 1심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류군은 "교수회관 소극장 문제, 학생

식당 임대 문제 등 학자 투쟁을 이끌어 나가기 할 총학생회장의 위치에서, 자의든 타의든 간에 약 50일간 자리를 비우게 되어 학생들에게 미안하다"며 석방된 지금의 상황에 대해 밝혔다. 한편, 류군은 지난 달 21일(금) 진행된 검찰의 구형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었다.
▶관련기사 11면
김민석 기자

이장희교수 사전구속영장 또 기각

교협, 공안물이 중지 요구 성명서 발표

지난 3일(수) 서울지법 공안부가 우리 학교 이장희 교수(법학과)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재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다음날 법원에 의해 다시 기각되었다. 이번에 기각된 사전구속영장은 검찰이 이교수가 쓴 '초등학생들 통일교육책'이라는, 통일(세)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의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이교수 대해 지난달 25일(화)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일주일

후 검찰이 재신청한 것이다. 검찰은 "이 교수는 초등학생들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북한의 '애국가'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그대로 게재하고, 북한의 교육, 의료정책이 남한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했다"고 영장 재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 학교 교수회의회 교수 336명은 3일(수) '이장희교수 영장재청구 및 출국금지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검찰은 학문의 자유

를 위축시키고 지식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한편, 다음날 4일(목) 서울지법 최종한 영장정당판사는 "이 책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이 교수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을 이용해 할 목적으로 집필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사비부

우리 학교 입시전형 확정

20일 특차모집, 29일 정시모집 원서접수 시작

우리학교는 오는 20일(토) 특차모집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98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특차전형은 △서울배움터 상위 6% 이내 △용인배움터 상위 10% 이내(영아·중국어과·일본어과만 모집)로 자격을 제한하며, 수능성적 90%와 학생부 10%를 반영해 최종선발한다. 정시모집은 오는 29일(월)부터 31일(수)까지 원서를 접수하며(동일계열만 지원가능) 논술고사 전형일은 내년 1월 19일(월)이다.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에서 수능성적 반영은 △인문계 50% △자연

계 60%, 학생부는 △인문계 40% △자연계 40%이며 인문계의 경우 논술 성적 10%를 반영한다. 면접은 합격·불합격 자료로 활용하고 면접 미응시자는 입학사정에서 제외한다. 또 정시모집에서는 △인문계 수리탐구 1명씩 50%, 외국어 영역 75% △자연계 수리탐구 1명씩 75%, 외국어영역 50%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한편 합격자 발표는 △특차모집 28일(월) △정시모집 2월 4일(수) 이전에 한다. ▶관련 12면 광고
홍연화 기자

지면 안내

- 서울 학생회장 1인제? 전국적 집행이다! 3면
학생반발을 예상, 대학당측에서 입대언자발표를 미루고 있는 듯, 그들 다면 교수회관 식당업자는 '한계기동'?
- IMF 구제금융시대의 노동현실 5면
나라 경제의 신용회복의 옛기는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개편과 노동시장 유연화, 550억달러에 팔려버린 '한강의 기적' 이어!
- 외대 생활문화운동들 실패했다 6면
'빈민' 운동에서 출발한 생활문화운동은 현재 생활문화운동 개성까지 포괄. 양귀! 고충에서 우리말 살려쓰기까지.
- 스포츠가 세상을 바꾼다 7면
스포츠의 폐단을 성찰해, 지나친 프로화, 스타시스템 등이 문제시 되고 있다는데. 옮겨 바꾸지 못하면 아니 바꾸면 안 못한다고 했는데.
- 통도산 미군 공여지가 해체된다 8면
지난 30년동안 미군공여지인 아유만으로 땅을 잃어버려야 했던 사람들. 그들의 개척정신이 드디어 미국으로부터 우리땅을 찾아냈다.
- 외대인인 나는 중학생 10면
학교법인·복지를 바라는 외대인이 가장 많았는데, 말로만 되는게 아니나다. 스스로 나서서 참여하는 수밖엔.

알림	발증 학사 일정
본보는 이번 704호로 2학기 신문을 마감한다. 다사다난했던 올연, 독자여러분과 함께 했던 외대학보는 내년 1월호 705호(신년호)에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다. 앞찬 방학 되시길 바랍니다.	97. 12. 22(월) - 동방명사적 98. 1. 12(월)~16(금) - 2학기 성적학 98. 2. 9(월)~11(수) - 98 1학기 수강신청 98. 2. 9(월)~13(금) - 98 1학기 98제약학·유학·복합학점 접수 98. 2. 9(월)~14(토) - 98 1학기 등록 98. 2. 19(목)~20(금) - 복학생 및 수강신청자 수강 신청 98. 2. 27(금) - 97 전기 학회수석
사령	
58기 수습기자 임	
정은숙(상·영아 2) 김길진(물리·화학 1) 이승준(물리·화학 1) 이지연(상·영아 1)	

학술상·문학상 공모

“일주일 더 드립니다”

공모기간: 12월12일(금)까지
모집부문: 문학상-43명(소설, 수필, 희곡, 비평)
학술상-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상금: 당선작-50만원(사)-40만원(가) 각-30만원
유리사항: 작품은 심사료 보편을 2부씩 제출
문의: 서울 961-4152, 4456
팩스: 서울 961-4152, 4580

시간때문에 작품의 길이를 깎을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바듯하다는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불만에 외대학보는 학술상·문학상 마감시간을 일주일 더 늦추기로 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19일(금)입니다.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사설

교수, 자기방어 필요하다

최근 서울에 교영복 교수가 고정간첩이었다는 안기부의 발표 후, 각종 교과서·논문집이 시작되고 있다. 교영복 교수가 고정간첩이었을지도 그의 글이 중화국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었다는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이어 유종훈 교수의 글도 교과서에서 삭제되었다. 기어 22년의 분서경유가 시작되고 있다. 국유를 달리는 이상한 건물의 글로 인해 극화도 아닌 진보적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의 글이 검열의 도마위에 올라가 있다. 검찰과 법원은 진보가 곧 '이적'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것은 대체로 위험한 발상이다. 진보가 어찌 이적이 되며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어찌 존재할 수 있겠는가. 이는 국가권력으로 지식인의 본성인 진리의 탐구를 가로막겠다는 것이고 이는 사회의 진리탐구를 금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대학이 진리의 상미타라면서 상미타의 기반을 이루며 학생들에게 진리를 깨우쳐주는 역할이 바로 대학교수의 역할인 것이다. 진리탐구의 역할을 사회진보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대학교수가 정체를 잃어버리면 이로 인해 그 사회도 정체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교수는 누구보다도 진리에 민감하여야 하며 양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19학명대 대학교수들은 민주주의를 지해하는 독재정도를 위해 시위대 앞에 서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대학교수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그들의 본분을 잊은 듯 하다. 상식을 벗어나는 결정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당당한 용기를 볼 수가 없다. 이는 그동안 안기부에게 진리탐구를 위한 학문에 복무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자신의 뜻대로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식만을 습득해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이념, 공산당국의 권위에 지식인 열정을 잃고 학문을 포기하는 것이기.

그 동안 논문들은 그것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든지간에 '합법적'이었다. 그러나 고정간첩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결말의 대상에 오른 것이다. 진리탐구의 출발은 사회의 상식적 기본을 지키며 사회의 모습에 시정의 칼날을 대는 것이다. 교수들은 진리탐구라는 자신의 학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국가권력의 불합리한 태도에 항의하여야 한다.

차기총장에게 바란다

오는 15일(월)에 우리학교 총장선거가 치러진다. 총장은 한 대학의 학교정신을 비롯한 각 부문의 최고 책임자이며 교수, 학생, 직원의 대표이므로 총장의 임무와 역할은 기어 한 학교를 총괄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 우리학교가 최근 국책대학과 교육개혁 후 대학교육 대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총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내년에 교육부에서 개편된 외국의 지역대학을 경험한 것은 우리 학교는 외국의 분교와 어학식, 교수·강사진에서 비롯된 비슷했지만 현 상태로는 활동할 수 없다. 또한 다른 대학에 비해 교수 1인당 학생수가 지나치게 많으며 도서관과 정서수와 질도 전국대학에서 앞줄을 돌지 못할 정도이다.

몇년전부터 나온 세세한 학생복지 문제만 보아도 재지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즉각 학내민주화의 부분과 연결된다. 학교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일원화된 학내 구성원인 학생, 직원, 의사는 무시되고 몇몇 교수들 비롯한 학교운영진의 의사라는 곧 집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럴듯한 의견만을 개설하여 학생들이나 직원들의 의견을 받는 모양만 취하고 있고 학생들은 학교에 아무리 불만을 호소해도 전혀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

학교의 주수입원인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은 돈을 내면서도 등록금 책정에 관해 일원연구도 할 수 없고, 학사행정으로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학사행정의 주위와 학교에 만연해 있고 학생들은 이에 밀려 객체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총장선출에도 학생과 직원의 참여는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다.

새로 선출되는 총장은 이제 학교인으로서 눈을 돌려야 한다. 진정한 학교발전은 단순한 외형의 발전이 아니라 학내구성원인 학교에 민족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장은 학내구성원의 의견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신과 몇몇 학교운영진만 학교를 만든다는 권위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 이럴 때만이 비로소 그 총장은 교수, 학생, 직원의 진정한 대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출산의 소리

자신의 의견을 담담히 주장하는 외대인의 기상을 기대합니다.

2003 원고지 4~5매 분량으로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함께 나누십시오.

원고마감은 매주 금요일 오후이며, 서울·울인 학생기자실로 오십시오.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도 원고를 보냅니다. (하이텔, 나무누(2)(OAE))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너무 좁은 서울배우터

저번 11월달에 우리과에서는 '터키어과인 한바탕'이라는 제국대회를 가진 적이 있다. 이날 제국대회의 주제를 맡은 필자는 먼저 준비하기 위해 운동장을 나가 있었고 먼지나는 산배들은 서로 축구를 하고 있었다. 한참 재미있게 '축구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남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뒤돌아보니 우리 과 85학번 산배가 운동장에 쓰러져 있었다. 달려가 보니 그 산배는 야구공에 맞아 얼굴이 파우산이 되어있었다. 주위에서 야구하던 사람의 공이 산배를 맞춘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우리 학교의 공경문제에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외대 모든 학우들은 알고 있듯이 우리 학교는 운동장이 2개 있다. 하나는 대운동장이고 다른 하나는 소운동장이다. 그러나 소운동장에 교수연구동이 들어서버렸기 때문에 테니스장만 한 공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오후가 되면 대운동장은 축구하는 사람들, 야구하는 사람들, 배구하는 사람들 심지어 학비하는 사람들까지 모여들기 때문에 마치 콩나물이 가득한 냄비 같다. 이렇다보니 사고위험은 도리어 높았다. 이러한 일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 학교 재단은 강남 자곡동에 22만평의 부지를 갖고 있음에도 이곳이 그린벨트라는 이유로 학교의 이전을 미루고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 재단이 학교를 자곡동으로 옮기려는 의지만 있었으면 해결될 수 있다. 서울대

이기원(동양·터키어과 2)

이번엔 꼭 동구어대 분리

동구어대 단대분리를 다시 제기한다고 하면 지난 과거의 일을 다시 떠올려야 한다고 의심해 하는 외대학우들이 많을 것이다. 그만큼 동구어대 단대분리의 문제는 세월의 흐름만큼이나 진부한 문제가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이전이나 현재 가장 우선은 서양학대의 비대항에서 학우들의 불만이 있다. 동구어대의 학과 수도 옛 건에 150평 정도가 늘었고 그에 따른 행정적 불편함은 이만치만 한 것이 아니다. 동구어대 분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적 편의와 전공관련 자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분리를 원하는 이유는 첫째, 동구어대 분리는 어문계의 학부들에 대한 전제적 반발의 움직임의 하나이다. 현재 많

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부제는 커다란 문제점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어문계에서의 학부제 실시는 '세계의 다양한 국가의 전문인력양성'이라는 큰 틀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이미 각인된 바 있다. 둘째, 지역학 도입에 따른 학제제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동구어대 분리는 그 이치에 부합된다. 셋째는 적극적인 외대발전의 길이 열릴 것이라. 그 중에서 11년 동안 800학우의 열광한 동구어대 분란만 해도 또한 함께 이루어지길 바란다.

최원창(동구·폴란드어 4)

TV토론회의 올바른 모습을 기대한다

매일전 TV에 대선후보들이 나와서 합동토론회를 하는 것을 보았다. 사상 최초로 열린 TV토론회는 그다지 좋은 모습만은 아니었다. 물론 그전에 경향이 없지 않았고 생각해도 상대후보들에 대한 비방, 인신공격, 흑색선전들이 너무 많아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각 후보들은 서로를 존중하는 아주 기본적인 예의조차 무시한 발언을 일삼았다. 서로를 헐뜯기 위해 그런 토론의 자리가 나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프랑스를 예로 들자면, 토론회장에는 후보들이 모두 인정한 두 명의 언론인이 사회를 본다. 대선후보들은 마주앉아 대화하며 정책을 대결하고, 공약들을 내세운다. 관객이나 특별한 무대장치도 없다. 그 토론회장은 말 그대로 후보들의 '토론의 장'이다. 서로가 의견제시를 하고, 다른의견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 사회자의 권한도 막강하여 시위를 남김없이 하면 발언을 중지시킨다. 또한 TV토론회가 생중전 30여분이 되는 미국은 TV토론회가 후보의 담화를 좌우하는 가장 큰 열쇠이다. 그러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예들중 본받을 것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TV토론회가 끝난후 한 병정처럼 "시간의 배분이 잘 이루어져 공정한 선거유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과연 7명의 대선후보중 3명의 후보가 참가한 토론회의 근본적 공정성은 무엇일지라는 의문이 남는다. 세 후보 모두가 정권하면 무작위를 최소화하면서 경쟁을 희생시킬 자신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것이 단순히 선거권력이 아니라 그 과제들을 실현시키려는 계속 이어질 의지임을 바란다.

전대영(폴리·화학부 1)



'돌리'의 양면성

'돌리'는 올 연초에 영국 스크랜드의 로슬린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복제 양의 이름이다. '돌리'의 탄생소식을 접한 인류는 눈부신 생명과학 기술의 발달에 놀라움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으며, 곧이어 미국으로 부터 날아온 인간보다 가까운 원숭이의 복제 성공 소식이 우리를 그동안 소심이 열화 속에서 보았던 '인간복제'가 단순히 꿈이 아닌 현실 속에 머무는 나날이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하마금 이것이 우리 그동안 소중히 간직해왔던 인간 존엄의 가치관을 파괴하여 결국은 인류 패망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었다.

20세기에 들어 과학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 인류에게 많은 물질적 풍요를 제공하여 주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과학의 발전은 또한 우리에게 사회 부적인 안 요소들도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해서는 안될 것이다.

핵의 발전은 우리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였지만 동시에 인류로 하여금 핵 무기포 인한 대량살상의 공포 속에 떨게하고 있다. 인공유전자의 기형아의 출산 방지와 산모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필요하지만 이 것이 오늘날은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있으며, 성적인 수순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이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지만 이것의 오남용은 성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을 혼란시킬 수 있다. 특히 20세기 후반들이 유전공학 기술의 발달로 인한 급속한 생명과학의 발전은 인류의 삶을 보다 온

택하게하지만 동시에 이의 악용은 우리의 가치관을 혼란시키고 사회계층간의 갈등을 야기시킬 것이다.

예를들어 노화를 방지하는 약제가 개발되어 질병치료 내지는 공익의 측면에서 고령자 사용된다면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이기적인 수 있지만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 약제를 매우 비싼 가격에 판매한다면 사회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여 나아가서는 사회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말 것이다.

과학의 발전은 우리 인류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이의 악용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부정적 측면이 두려워 과학이 가져다주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이를 포기하기 보다는 진화적인 의식 속에서 과학자 뿐만 아니라 과학도민들의 이기를 사용하는 모든 이들이 윤리관계를 더욱 높이고 사회 가치관을 확고히 함과 동시에 과학도민의 악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여 우리의 과학도민이 인류의 공익을 위하여 사용될 때 보다 행복한 인류의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박 준 찬
(미생물학과 교수)

나도 투표하고 싶다. 너두지?

-1학년-

의대에서 안할것 같다고 다른학교로 옮기지 마십시오. 우하하

자곡동 이전 -하-

이희창하고 잘 되면 우리도 자곡동 부탁합니다.

-부락하요-

교과와 이자리의 난폭함, 수위하체의 불친절, 무사죄요

-검역에 애-

소곡장은 우리가 쓰려고 우리 돈으로 우리

주제: 15일(월)은 차기 총장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차기 총장집단 하 고실은 한마디는...

가 지는나만 때때로 결 혼식하고 그러면 안돼요

-식-

최소한 일기내에 망 하지 않게...

-도-

대에서 안할것 같다고 다른학교로 옮기지 마십시오. 우하하

자곡동 이전 -하-

이희창하고 잘 되면 우리도 자곡동 부탁합니다.

-부락하요-

교과와 이자리의 난폭함, 수위하체의 불친절, 무사죄요

-검역에 애-

소곡장은 우리가 쓰려고 우리 돈으로 우리

독자만평



IMF 자금지원 협상의 의미

박신일(서화·독일어 3)

도대체 누가 뽑은거야?



문민독재

03

우리는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또 한사람을 감옥에 보내야 할 지도 모릅니다.
해방이후 50년동안 이름만 바꾼
대한민국을 지배해 온 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대한민국의 파산뿐입니다.

민족자주권
외대화보

또 후회하시겠습니까?
12월 18일(목)이 되면
사람이 골과 박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러 계획들, 하루만 늦습니다.
그리고 투표합니다.
5년간 우리의 모든 것 말릴 사람을 뽑는 과정이
결코 귀찮거나 번거로운 수는 없습니다.

서울 학생식당 임대 어떻게 되거나

일방적 임대결정, 반발은 필연 이윤추구, 검은 커백션 등 제기 ... 업자 선정 미뤄



지난 9월 최초로 임대논의에 들어간 후, 학생과 식당직원들의 불만 속에서도 강행된 서울배움터 학생식당의 업자 선정 및 발표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대학당국은 지난날 18일(화) 교수회관 식당업자·신용유치 상점(경희대 식당 업자)·아라코(용인 후생복지관 식당업자) 등 3개업자의 사업설명회를 연 바 있으나 "이제 뭐라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는 말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지난 19일(수)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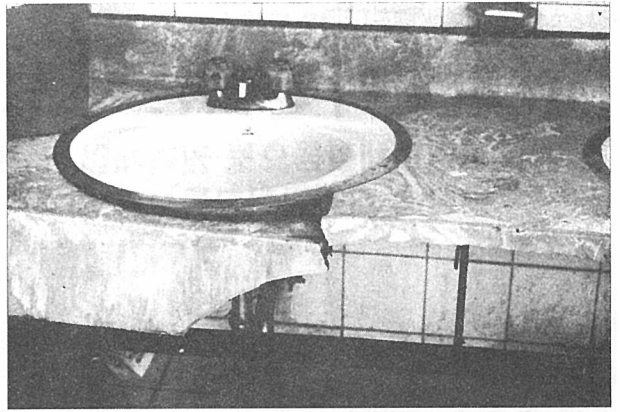
소극장에서의 '결혼식' 문제 등에 깊이 연루된 '박사장'에 대한 불만이 워낙 높고 이로 인해 대학측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일각에서는 학생들이 없는 발중에서 사설 식당업자를 선정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료의 자체가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가장 보편적인 근거로 '이윤추구'가 목적인 임대업자와 과

연 식사의 질을 개선시킬 의지가 있겠는가 하는 제기다. 학생식당 주방장 유관 회씨는 "수원점문대의 임대식당에 근무할 당시만 봐도 사장은 어떻게하면 재료값을 아끼기 위한가에 대한 부분만 고민한다"라며 이 주장을 "경험으로서" 뒷받침했다. 더구나 경제불황과 물가상승이 가중되는 요즘은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또, 식당 전문업체의 경우엔, 여러개의 학교식당을 함께 경영하므로 의견수렴이나 그 실현의 과정이 적절하다 몇 배나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도 있다.

둘째, 서울배움터 학생식당의 문제는 △시설의 낙후 △공급원소 △직원복무 등 근본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라는 '임시방편'을 통해서라도 '결코'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학생들과 협의없이 진행된 대학 당국의 일방적인 임대결정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처음부터 일방적인 태도의 대학당국에 대해 비록 총학생회가 중도에 '임대반대' 의지를 굽히지 않았지만 업자선정과정에서 교수식당 업자(박사

장)의 배제는 강력히 요구해 온 바 있다. 그럼에도 이 요구는 묵살됐다. 다섯째, 정문영영인도. 그렇지만 대량 구매력까지 없는 개인업자는 더욱 더 임대료의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교수식당 업자가 대학교육과 '모종의 관계'가 있고 따라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니, △교수식당의 성공적 운영 실패 △소극장 내 결혼식 문제연구 등 부정적 인식 등의 이유로도 불구하고 업자선정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 주장에 힘을 실고 있다. 이와 관련, 입학에 참여한 업체 중 하나인 '아라코'의 영업부장 김경숙씨는 "상황이 어떻게 되든 우리도 전혀 모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당국은 이와 같은 학생들과 식당 직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임대료 결정할 경우, 심각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며, 서울배움터 학생식당은 교수·학생·직원 3자가 공동출자하는 용인의 '생활협동조합' 형식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서울경 기자



용인배움터 학생식당 2층 낱자 화장실 세면대 모습이다. 세면대 하부 철근들이 심하게 녹슬어 있고 주변이 내려 앉았으며, 벽에 걸린 거울도 깨진지 오래 되었다. 또한 천장이 갈라져 들떠 있으며 3층 번거의 물이 천장을 타고 세는 등 전연적 공사가 시급하다.

만신창이 화장실

용인 동구어대 분리문제 다시 제기

"더부살이 더는 못하겠다" 총장도 인정하는 학문적 독립성

용인배움터 동구어대 학생회는 최근들어 한동안 중단됐던 단대분리 문제에 대해 총장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적극 제기하며, 이반에 문제를 확실시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동구어대 분리문제는 지난 87년 처음으로 풀린데, 두바이아어 전공 등 동구어와 신상에 따라 1학기 어문대 학생회에서 처음 거론됐던 것으로, 92년 동구어 연합결성 및 '독종집주 동구어대' 학생회로 선거를 치렀다.

이 후 장기학생총회에서 독립한 한 개의 단대로 함께할 실질적으로 하나의 단대로 학생들 사이에서 인준 받아왔다.

또 93년 총장선거 당시 안병만 총장은 "동구어대 분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단순히 공약으로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그럼에도 동구어대학생회는 95년 대학 당국의 '학부제' 추진문제로 학생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올해까지 단대분리 문제를 거론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동구어대 학생들의 단대분리에 대한 인식도 그 이전에 비해 낮아진 것이 사실이다. 얼마전 동구어대 소속 학생대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대분리해야한다 86.3% △할 필요없다 8.9% △상관 없다 4.2%로 나타났다. 이는 동구어대 소속 학생들의 단대분리에 대한 욕구가 이전에 비해서 많은

떨어지지만, 여전히 높음을 말해주고 있다.

동구어대학생회는 단대분리의 당위성에 대해 △지역학 도입의 제도적, 학문적 기반 마련 △사상학대의 양적·정량·12개과 2천 8백명 에 따른 문적적 극복 △부족한 교수 확보와 전공관련도서 확보 및 동구어대 자료 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동구어대 졸업생들의 취업난 해소 등을 위한 기반 마련 △동구어대를 외대의 특수성에 맞게 홍보함으로써 동구어대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이에 따른 우수 신입생 유치 △동구어대학생회의 합법화로 학생자치권 확대 등으로 약속 설명하고 있다.

동구어대 소속 한 교수는 "동구어대에 분리되지 않은 지금의 사정하대회는 그 규모가 너무 크다"며 "분리는 법학파 하 나라도 단계를 구성하는데, 동구어대는 그 규모나 인원수가 큰데도 불구하고 왜 분리가 안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구어대 학생회장 권관대 학생(체고 4)은 "새로 구성된 동구어대학생회는 더 이상 단대분리 문제를 두고있지 않을 것이다"며 "이런의 어는 해보다 단대분리에 대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일 것이다"고 밝혔다.

홍연하 기자



취재 특수

세습되는 폐해, 학부제

얼마전 자연대 학생회장 당선자 인터뷰를 위해 국회 자연대 학생회실에 찾아 가던 중 자연대 학원자주화주원위원회(학자주) 간부로 활동 중인 민경국(물리 2)군을 우연히 만났다. 그와 특별한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지만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인연을 맺은 사이다.

그는 지난해 학부제 문제로 자신의 회교라는 다른 과로 배정받은 피해를 본 학생 중 한명이다. 그래서인지 그는 선거가 한창인 요즘에도 전공 선택권 완전 보장을 위해 학내를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의견을 중점 수집했다. 자신이 겪은 아픔을 다른 한 명의 학생이라도 겪어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보였다.

자연대에서 조사한 설문결과에 의하면 약 85%의 학부 소속 학생이 학부제를 반대하고, 그 중 50%의 학생이 학부제 폐지를, 나머지 35%의 학생들은 전공 선택권 완전보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얼마전 대학당국은 98학년 신입생 모집도 학부제와 계열제로 선별하겠다고 밝히며 임시전원을 발표했다. '정공선택권 완전보장'을 외치며 대학당국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뒤로 한채 결정한 시간이다.

그동안 계속 제기되는 학부제관련 문제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내내에도 학부제와 계열제로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각 학생회는 아직 학부제 문제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학생회가 본론하지 못한다는 점과 대다수 학부제 문제로 대학당국에 항의한다해도 불리할 것을 고려하는 패배적인 생각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학부제·계열제 문제로 인한 또 한명의 피해를 더 이상 볼 수 없다. 이제 대학당국은 주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학부제·계열제 문제로 학고를 떠나는 학생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김민석 기자

기숙사 사생회 횡포 여전

아라코와 독단거래 한마디 해명없어

최근 용인배움터 기숙사 사생회가 후생복지관 아라코 식당에서 사용하는 기숙사 식권의 거스름돈을 받지 않는 대신 레이저 프린터를 받은 사실이 얼마전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702호 참조)

이 문제와 관련하여 19대 총학생회 건설준비위원회(건준위)에서는 사생회측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기숙사내에 대자보를 붙이는 등의 작업을 벌였으나, 사생회는 아직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하지않고 있으며, 기숙사내에 붙인 대자보 또한 훼손했다.

이에 건준위 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사생회측에 '이는 기숙사 사생회의 일관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기숙사의 민주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2문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나 여전히 답변이 없으며 19대 총학생회 건준위 회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숙사 남사생회 회장이 갑자기 사라지고, 여사생회측은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모른다'며 책임사임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사생회측에서 배포한 '임주없는 기숙사에서 살고 싶다'라는

제책의 사생회 개선안 및 요구사항에서 사생회측은 '기숙사 식권에 대한 관료들의 불만이 많다. 이의 해결을 위해 처리할 수 없는 식권 환원과 현재 점심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기숙사 식권을 아침, 저녁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생회의 대외적 갑자기 달라지고 이 문제에 대한 총학생회의 개입에 상당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기숙사 식권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아라코 식당 지점장 서상모씨는 이 문제에 대해 "사생회측에서 우리에게 기숙사 식권을 받지 않는 대신 레이저 프린터를 달라고 해서 준 것뿐이다"며 "우리는 사생회측의 결정에 단순히 따른 것 이외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9대 총학생회 건준위측에서는 "기숙사 식권에 대해 기숙사 학생들의 의견 수렴없이 사생회가 독단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며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윤숙 기자

외대 교직원, 학생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신뢰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최근 시중에 떠도는 유언비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저희에게 보내주신 믿음과 신뢰가 실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피땀어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회사 정리, 업무용부동산 매각, 영업점의 통폐합, 해외점포 매각, 인원감축, 임직원의 급여만단 등... 지회 임직원 일동은 더욱 믿음직한 행으로 거듭나기 위해 어떠한 시련과 고통도 감내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건전여신 매각

97년 11월 26일자로 저희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불건전여신의 절반이상을 성립공시매 매각완료함으로써 불건전 여신비율이 대폭 개선됨과 동시에 자산의 건전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자본금 증가

97년 12월 1일자로 "국유재산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어 금년 12월중에 8천억원의 정부출자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납입 자본금 규모가 1조 6천 2백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자산 재평가

98년 1월 1일자로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6천 5백억원의 예상차익이 발생되어 자기자본 비율이 더욱 건실해져 국제결제은행(BIS)이 요구하는 자기자본 비율 8%선을 훨씬 상회하게 됩니다.

중도해약한 예금을 다시 예치하시면
이자 손해가 없도록 전액 보상해 드립니다!
(대상기간 :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뛰고 뛴습니다.

모든 경영지표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어려움을 전회위부의 계기로 삼아
전 임직원은 혼신의 힘을 다해
뛰고 또 뛴습니다.

지켜 봐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일은행

임직원 일동

▶ 학술논단 - IMF 구제금융시대, 우리 노동현실을 살펴본다

550억불에 팔린 '한강의 기적'

노동자 고용불안 · 경제예속 심화가속

의 합의내용이 공식발표되었다. 그 내용을 대충 살펴보면 첫째, 은행 및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개시되었다. 미국의 경우 42개 금융기관을, 인도네시아의 경우 16개의 은행을 폐쇄할 것을 요구한바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 IMF합의단이 회생가능한 부실 금융기관을 파산시키고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은 구조조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거시경제운영목표의 대폭적 수정으로 경제성장률을 3%로 하향조정(멕시코의 경우 2%,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2.5-3.5%로 요구), 경상수지 적자를 1백 35억달러에서 43억달러로 내리고(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GDP 대비 경상수지적자 비율을 2년내 3% 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 내년 예산에서 1조 1천억원의 흑자를 내도록 편성(외국의 경우 GDP 대비 흑자율을 2%로 요구), 조세를 인상(부가가치세율을 멕시코의 경우 10%에서 15%로, 태국의 경우 7%에서 10%로 인상 요구), 임금상승을 억제(멕시코의 경우 최저 임금상승률을 10% 이내로 억제할 것을 요구), 물가상승을 억제(모든 나라에 대해 한자리수 상승 요구) 등에 대한 요구이다. 셋째, 산업구조의 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뒷받침할 제도의 정비이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통신사업 등을 민영화할 것을 요구했으며,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곡물수입의 국가독점제

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IMF 합의안이 일부산업의 기업합병과 공기업 민영화,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근로자파견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넷째, 모든 시장의 개방요구이다. 멕시코의 경우 은행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진입을 요구해 민간은행 중 규모가 큰 3개은행을 재외하고는 나머지 모두에 대해 외국인대주주를 허용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협정안은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 주식취득이 용이하도록 외국인 은행주 취득한도를 대폭 완화하고, 외국인 주식투자현도를 98년말까지 55%까지 확대할 것과 외국인직접투자제한 축소 등을 요구했다. 과연, 언론의 용어처럼 IMF의 금융지원이 경제실태를 바로잡고, 이러한 상황에 빠진 우리 나라의 실세를 한일합방의 경제국치에 빚대 감축국치라 할 만하다.

국내 국제연구소나 민간연구소들의 분석에 따르면, 내년의 우리경제는 저성장과 실업의 급증을 겪게 될 것 같다. 내년 성장률에 대해서는 대부분 4%내외로 전망했으며, 실업률은 3.5-4.0%로 약 100만 정도가 실업상태에 빠질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물가상승률은 5-7%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적 수치가 어찌 되었든, 내일이후의 우리 경제는 당분간 재정수지 흑자와 국제수지 개선, 물가안정을 위해 내림작

속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기업도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국내소비감소로 인해 투자를 대폭 감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매우 낮은 성장률을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구조조정과 인원감축, 그리고 투자감축에 따른 대량의 실업 또는 고용불안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 금융기관들이 외국자본의 지배에 있게 될 가능성이 커, 멕시코처럼 외국자본에 대한 종속의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이다. 이러한 경제상태는 노동자들의 생활을 가장 큰 희생으로 내줄게 될 것이다. 실업이나 끊임 없는 실업에의 위협, 근로조건의 악화, 임금결과 불거짐에 따른 실질소득의 감소, 그리고 실질소득의 감소가 가져다주는 소득분배의 악화와 같은 노동자들의 삶을 아주 고단한 것으로 만들 것이다. 멕시코의 사례가 보여 주듯이, IMF 구제금융에 의한 파산경제의 재건은 절대적으로 노동자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희생을 요구한다.

IMF의 구제금융은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IMF의 요구충족이나 우리 경제가 희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가? 많은 경제학자 언론인들은 IMF의 요구가 우리 경제의 고질적 병폐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기관이나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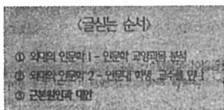
의 구조조정, 그리고 정리해고를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는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만큼, 이번 기회에 대대적으로 개혁의기를 바란다는 심정이다. 그러나 IMF의 요구내용은 경쟁과 안정, 그리고 시장의 완전한 개방을 최고선으로 추구하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원리의 충실한 대변이다. 이것은 국내경제를 보다 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첫째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과 소득분배의 심화를 가져올 것이며, 둘째 미국 등 선진자본주의국가의 금융자본에 의한 국내금융 지배를 가져와 국내경제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우선 당장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MF의 요구를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건설적인 경제의 성과 그 자체를 희토로 바꿀 수도 있다. 우리가 우리 경제의 본질적 문제점인 불안정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 위에 서 있어야 한다면, 우리는 이번 경제위기와 그로 인한 IMF의 관리로 인해 온 길을 되돌아가서 다시 출발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조복현

(대전산업대 경제학과 교수)

인문학, 외대답게 살아보자

제3세계 문학연구, 지역문화 소재로 새길 모색



“인문학이 흔히 ‘돈 안되는 학문’이라고 받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문학은 그 순수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이를 위해 국가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박 철 교수(서반어)는 첨단과학기술과 자본의 논리가 관을 치는 현실에 대해 인문학이 가지는 적절한 견제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입장에 있다. 한편, ‘인문학의 상실’ 그 자체에 대안이 없다는 낙관론도 있다. ‘인문학이 위기라고 하지만, 어느 학문이란 전공상의 직장을 가지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다 새로운 문화적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흐름에서 요즘, 인문학 전공자들이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박희정 교수(철학과)의 말이 바로 그것이다. 앞에서 두 논의가 조금은 수동적인 입장에 서있다고 한다면, 현실의 변화에 발맞추어 인문학이 적극적으로 실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이상의 논의 속에서 이제 우리는 외대의 인문학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 학교는 원칙적으로 교양의 중심이 학부에서 외국어를 완벽하게 구사, 그 해당지역의 기초적인 역사와 문화를 습득한 후 동대학원이나 지역대학원에서 그 분야의 전문기로 커나갈 수 있게 하는 데 있는, 실용학문의 풍토가 강할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 속에서 인문학이 대안을 마련해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발견된다. 예를 들어보면, 문학연구에 있어 우리 학교에는 국내유일의 ‘외국문학연구’가 있다. 그것의 외국어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우리 학교의 특성 속에서, 문학을 전공한 각 학과와 교수들이 모여 활발한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는 외국문학연구소는 특히, 태극문 문학, 루마니아 문학, 브라질 문학 등 3개 분야 연구에 있어서는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문학 관련 교양강좌와 교재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앞으로 ‘문학의 세계화 과정과 한국 문학의 세계화’라는 주제연구도 준비하고 있는

외국문학연구소는 학교의 열악한 재정지원으로 그 가능성을 제대로 펴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런 연구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과 함께 인문학의 지역화의 연구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지역학이란 연구대상지역의 언어를 토대로 하여,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특수성과 보편성을 포괄하는 해당지역의 총체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종합학문이다. 여기서 지역학과 인문학의 연계란 인문학이 각 지역의 문화를 연구소재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는 인문학이 인간문화현상을 포괄하는 신학성이 큰 보편적 학문으로 나아가는 총체적 경향에 일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학과 인문학의 연계에 있어서 미국주의 지역학의 정치성, 상업성을 지향하면서 우리 학교의 지역학이 삶의 참으로서의 지역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그 본래의 의미대로 연구되는 풍토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지역학과 인문학의 연계의 가능성을 열 수 있는 움직임은 이미 우리학교에 있다. 거의 모든 학과의 교수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세계역사문화연구회’가 그것이다. 세계 각지역의 일상생활문화로 세계 각지역에 대한 역사문화 연구에 접근하고 있는 이 학회는 그 유명한 ‘몸으로 본 동·서양 문화’ 외에도 문화의 상징으로서의 패셔너블로, 아프리카의 종교와 문학, 중국의 종교관, 팔레스타인 이슬람 부흥운동의 발전과 침체, 신화와 의식의 철학적 의미 등 인문학이 각 지역문화연구에 참여하는 초보적인 학제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매월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세계역사문화연구회의 학술발표회



사진은 철학과 박희정교수가 지난 5월(금) 열린 세계역사문화연구회의 콜로세움 신화와 의식의 철학적 의미를 발표하고 있다

‘콜로세움’에서 인문학의 지역학의 연계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그 논의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면 인문학 위기의 풀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대 인문학이 모색할 수 있는 길은 이미 터가 닦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길이 인문학 발전의 고속도로가 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인문학 연구자들의 활발한 대안 모색과 그 결과로서의 연구활동에 발맞추는 충분한 재정지원이 그 열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술부

대학별국 제 3계명



포항제철은 젊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이야기 - “감사하십시오”

하루 24시간 중 10분은

내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위해 감사의 글을 써보십시오.

가족과 친구, 스승과 작은 도움이라도

지금의 나를 있도록 준비해준 사람들을

되도록 많이 떠올리고, 많은 편지를 써주십시오.

아마도 그 감사의 10분이 자신에게 더 많은 기회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제철의 창립자
포항제철

빼앗긴 동두천, 30년만에 되찾는다 미군공여지 해제 눈앞... 권리찾기 운동의 성과



미군의 해방이 없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땅이었던 동두천 미군공여지가 내년에 해제된다. 하지만 아직도 동두천에는 800만평이 넘는 공여지가 남아있다.

지난 30여년동안 미군공여지라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해오던 경기도 동두천시의 미군공여지 중 일부가 내년 중으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13~14일에 열린 한·미 안보회담에서 한·미는 원칙적으로 동두천시 전체면적의 51%(1460만평)를 차지하고 있는 공여지 가운데 43%(610만평)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으며 내년 중으로 한미합동청문회(SOFA)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정확한 해제 구역

을 말하는데, 동두천 공여지는 지난 67년 2월 한·미행정협정에 의해 이곳에 주둔하는 미군에게 작전목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그동안 건물과 산과 등·계곡은 물론 농사용 시설을 설치해도 일일이 미군과의 협의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공여지 문제는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외국마을' 사건으로 세간에 널리 알려졌다. 미군은 지난해 3월 외국마을(경남도 83-1) 일대에 중화기 사격장을 새로 만들기 위해 주민들과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여지를 점령했다. 이는 미군 사정을 확충하기 위해 미군들이 땅파는 의의에서 배제할 것이다. 살던 집에서 쫓겨나 생計 주민들의 형편이 투쟁이 결국 미군과의 협의를 철회했다.

주한미군보안검문본부(문동부) 정유진 간사는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이번 사건의 경우 구체적으로 공여지 문제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권리찾기 투쟁이 결국 미군 해제의 성과를 얻어냈다"고 밝혔다.

한민협 23조의 '재산권 보호' 조항에 의하면 국가가 공공관계에 의해서 개인사유자를 징발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당한 보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두천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여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군으로 배타적 사용권이 남아있는가 하면 소유주에 대한 어떠한 배상도

없다. 심지어는 땅 소유주와 해당 관청마저 공여지를 아예 모르고 있다.

불합리한 공여지 사용권의 양도로 인해 주민들은 부동산을 팔고 사거나 소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 한 예로 광암동 국제제미작업소는 지난 94년 8월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시공에 들어갔으나, 건물이 거의 완성된 무렵인 95년 3월 국방부로부터 건축물을 지진 철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미군측이 부대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건물이 산적하고 있다며 정의를 찾기 때문이다. 결국 회사들은 공여지로서 "언제라도 미군이 요구하면 즉각 공작가동을 중단하고 철수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공장건설을 재검토했다. 이에 대해 동두천 민주시민회 의장 정우섭(운동부부 상임대표)은 "그동안 주한미군에 대해 논하는 것만으로도 별개로 불리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주민들이는 상의의 위치를 무시했다"며 "30년전에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결정된 공여지는 법적으로 무효"라고 말했다.

또한 정우섭은 "미군은 한국에 자국의 무기를 팔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필요와 이익을 위해 주둔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에 의해 침해받았던 우리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기지축소, 기지일체로, 장수, 나아가 자주국방을 통한 주한 미군 철수 운동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부

시론

선거와 공안한과는 일란성 쌍생아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는 지구촌 다른 국가와 특별하게 대비되는 선거문화가 있다. 후보자의 능력이나 자질, 또는 정책의 차별성이 지극히 중요하지 않은 종속변수가 되어 버리게 하는 커다란 '준거'가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의 탓이다. 사실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머리속을 갈라서 확인할 도리도 없다. 그래서 이 사실의 탓에 잘못 걸려든 그대도 나쁜의 심자기에 목을 매고 갈는 것이다.

87년 선거에서는 KAL이 폭과 사건이 터졌고, 후보로 전날 최백범 김원희를 걸고 공안한을 통해서 유류비 절여 들어오게 된다. 다음날 투표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노태우의 압승으로 끝났다. 물론 YS의 D가 분열된 탓도 있지만 김원희의 압승은 결정적이었다. 노태우는 전국적으로 고된 목표를 거머쥐어 무난하게 당선이 되고 만 것이다.

92년 선거에서는 당시 민주당 총재인 김대중의 비서와 관련된 대규모 간첩사건인 이선 실 사건이 선거 막판에 터졌다. 완변한 지역 구도(3당 합당으로 인한 호남 포위전략)로 치러졌던 당시 선거에서 이선 실 사건은 할기 폭발과 김원희의 건과 맞먹는 위력을 갖고 김대중 후보를 짓눌렀다. 그러나 좌에 현재 안기부 핵심요직에 근무하고 있는 박인환의 '우리가 남이가'라는 발언은 전국을 갈라

했고, 선거결과를 3당합당세력의 완변한 승리로 끝내고 말았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97년, 선거를 10여일 앞둔 지금 우리 길에서 이선 실이 벌어지고 있는가? 매년 선거 때마다 RUD COMPLEX에 몰려다니는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비밀정 관주대 박지동 교수가 공안기관에 의해 구속되었고, 외국어대 이경호 교수의 영장이 기각되는 수모를 겪으면서까지 검찰은 이경호 교수를 구속시키려 하고 있다. 이경호 교수의 구속사유는 통일원서에서 발행하는 책자에 실린 글이 이적성이라는 것이다. 또 얼마전에는 부부간첩이 나타나 안기

부 김숙이 뿌리박혀 있던 서울대 교원회 교수들 세상에 드러나게 하였다. 안기부는 한치의 수처신도 없이 자신을 내부에 간첩이 있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는가 하면 김숙이 17인이사나 살다 나와서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서준식씨를 데드 엔트라는 영화를 상영했다는 이유로 구속해 버렸다. 서준식씨가 상영한 영화는 제주도 단독정부를 수립 한대 43명정도를 소재로 다른 영화로 전문가들 대다수 견해는 이적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안기부를 위한 공안기관은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가? 이 이유는 무엇인가? 세간에 떠도는 많은 두가지 주장 정도를 압축한다. 하나는 대선 이후 어떤 후보가 피터라든 자신들의 반격을 지켜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각 이익집단들이 대선기간 동안 자신들의 이익을 내걸고 그 후보들을 공박하는 차원의 일종의 정치권 위안 셈이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서도 정권의 제도에서 정권이 움직이지 못하는 속임수이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특정후보를 염두에 둔 공작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대개 우파들의 심리는 반공배열이 불분명한 일종의 퇴고 지연으로 정권연속으로 표기 용인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50년동안 반공을 한축으로, 지역 배려, 폐기된 정치를 한축으로 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며 친반공 기득권층이 얹힌 한 존재였다. 그들 스스로 자신들을 보수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들은 때로는 유신독재 박정희의 탑을 쓰고, 때로는 국가보위회 출신의 탑을 쓰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공안한과는 분명 이러한 연장상에서 진행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박정범

(민주주의인민공화국전국연합
교육통신부)

TV토론, 미래를 건 한관승부 이미지 정치로의 변질, 정치권력의 도구화 막아야

미래의 우리는 97년을 어떻게 기억할까? 아마도 몰리도 그 기억을 중에는 지겹도록 계속하던 대선후보 TV토론이 있을 것이다. 세 계기목을 경신할 정도로 무수히 치러진 97년 대선후보 TV토론은 미래의 우리에게 어떤 의의가 될까?

97년 대선후보 TV토론의 의미는 일단 '국민의 경음'이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한현 대에서 인제 대통령직 이만공의 경음을 가진 것이 있었지만, 국민은 TV토론을 통해 자신의 지도자를 직접 감청한다.

또 TV토론은 한편 해박한 한국 정치문화의 '제정신'으로 떠오른다. 그동안 정치인들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도 '한국에서 돈 많이 정치 못한다'고 골골 뽀러대곤 했다. 국민들도 '복'을 '정치자금'으로 어느 정도 허용해주는 분위기다. TV토론으로 대표되는 미디어정치

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면 '돈' 없어도 정치할 수 있는 세상'이 될 지 모른다. 물론 돈이 있든가 정치력이 있어야 미디어가 주목한다는 문제는 여전히 있다.

TV는 이미지 재조이다. TV에서 재정의는 유형 물질의 모든 정보들은 한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이미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정보는 사소한 것들이다.

92년, 빌 클린턴 후보와 조지 부시 대통령의 TV토론 직후 심한 여론조사에서 클린턴은 높은 지지율로 부시를 앞질렀다. 토론이 끝난 뒤인 아침 8시에 다가가 클린턴의 눈을 응시하며 마치 일 대 일로 대화하는 듯한 태도로 답변한 것이 시청자에게 전달감을 준 것이다. 그동안 부시는 카메라 자살을 비웃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리에 앉아 시간을 체크하고 있었다. 이런 모습은 유권자인 시청자에게 부시

가 청중과 분리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이처럼 사소한 정보가 이미지의 주요부분을 형성할 수도 있는가 미디어정치라는 자칭하면 이미지정치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다.

또 대중이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맥락을 정확히 읽어내지 못하고 그것을 맹신할 경우 미디어는 기존 정치엘리트의 권력유지를 위한 도구에 머물 수 있다. 이때 미디어를 통한 대중정치라는 한낱 환상이 될 뿐이다. 독재자가 미디어를 직접 지배했던 한반도의 과거가 그러 한 우려를 일깨운다. 과거는 곧 현재진행형이 될 수도, 미래형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안다.

TV토론이 미디어 정치를 실현할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재산소유의 일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TV토론에 희망을 걸어보는 것은 TV라는 매체의 '직접성' 때문이다.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후보간 토론은 후보들의 차이를 명확히 드러내 보여준다.

이런 대중정치문화들간에는 개혁의 토론이 한축으로, 그리고 1인 개별초청토론회와 다

론을 벌이게 한다. 또 '불공정 시비'를 일으켰던 페널티스트도 없었고 사회자만으로 진행했다. 이런 함정토론회의 장점은 무엇보다 후보간의 우열을 가늠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참가후보간의 답변·반박·재박박을 통해 유권자들은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각 후보들의 정책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이 토론회가 한국의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양질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지는 미지수다. 토론회의 성과 여부는 오히려 자기 대통령의 일기가 끝날 때까지 알 수 있을지 모른다.

TV토론을 통해 유권자가 제대로 대통령을 뽑을 수만 있다면 TV토론만큼 민주적인 선거도구는 없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TV토론은 기존 정치엘리트들에게 또다른 정치도구를 부여하는 데 그칠지 모른다. 따라서 유권자가 TV토론을 통해 어떤 대통령을 뽑는가에 따라 올래 TV토론에 대한 미래의 평가는 달라질 것이다.

이경숙

(기자협회보 기자)

항공대 투쟁, 대학원생·교수 동참

재단법인 반대의 국립대 환원 문제로 빚어진 항공대 사태가 갈수록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이미 지난날 1500여명의 학생들이 집단피복을 제출했고, 지난날 26일(수)에는 항공대 대학원생 157명도 전원 피복을 제출했다. 또한 지난 11월 22일에는 정세교수들의 투쟁을 계기로 재단법인을 해체하고, 국립대 환원을 주장하던 정세교수들을 대표로 산출하기도 했다.

대학원생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립과 이후, 현 대한항공은 미스터플랜과 약속들을 철저히 무시하며 투자를 회피하여 왔고, 학교 발전에 대한 학생들의 시위가 있을 때마다 투쟁하겠다는 거짓말로 항공대 교수들을 우롱하여 왔다"고 밝히고 "사립화와 함께 항공대를 회수하는 대한항공은 회수해야 하며 항공대는 국립대로서 육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항공대 총학생회는 지난 25일(화) '국립항공대 전환선언'을 구상해 전국적으로 서명 및 선언활동 등을 벌이기로 하는 등 재단법인과 국립대 환원 투쟁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97 2학기 기말시험 및 추가시험 실시

● 기말시험 안내

- 가. 시험 기간 : 1997. 12. 15(월) ~ 12. 19(금) (5일간)
- 나. 시험 방법 : 시험시간표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담당교수의 지시에 따르기를 바랍니다.
- 다. 평가 방법 : 담당교수 제량으로 필답고사, 과제물 부과, 수업중 수시평가, 기타 객관적 인정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추가시험 안내

- 가. 대상자 : 해당과목의 중간·기말시험을 모두 결시한 자로서 유고결시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 1997. 12. 22(월) ~ 12. 23(화)
- [접수처 : 해당 대학 교학부]
- 다. 추가시험 일자 : 1997. 12. 26(금)
- 라. 추가시험 성적 제한 : A- 이하

1997. 12.

교무처장

'97 겨울 계절학기 개설교과목안내

우리대학교의 97겨울 계절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 결과 개설 교과목과 들과 같이 학정 공고합니다.

1. 개설 예정과목

과목	교과목명(교과목명)	학점(시간)	교과목명(교과목명)	학점(시간)
2001	한국 근·현대사 (1962)	2(2)	09-00-10-40	
2002	외국문학사 (1962)	2(2)	10-00-10-40	
2003	한국사 (1962)	2(2)	12-00-10-40	
2004	한국사 (1962)	2(2)	14-00-10-40	
2005	한국사 (1962)	2(2)	09-00-10-40	
2006	한국사 (1962)	2(2)	10-00-10-40	
2007	한국사 (1962)	2(2)	12-00-10-40	
2008	한국사 (1962)	2(2)	14-00-10-40	
2009	한국사 (1962)	2(2)	09-00-10-40	
2010	한국사 (1962)	2(2)	10-00-10-40	
2011	한국사 (1962)	2(2)	12-00-10-40	
2012	한국사 (1962)	2(2)	14-00-10-40	
2013	한국사 (1962)	2(2)	09-00-10-40	
2014	한국사 (1962)	2(2)	10-00-10-40	
2015	한국사 (1962)	2(2)	12-00-10-40	
2016	한국사 (1962)	2(2)	14-00-10-40	

- 2. 수업 시간 : '97. 12. 22(월) ~ '98. 1. 16(금) (16일간)
- ▶보통일 포함(일, 일학년생 접수일, 공휴일은 제외)
- 3. 담당교수 학정 발표 : '97. 12. 11(목) <개시관에 공고>
- 4. 수업 : 서울캠퍼스(강의실은 추후 공고문 참조)
- 5. 성적 적용 : '97. 2학기 성적에 추가 인정됨
- ▶(학업성적 장학금 선발과정등에는 적용 안함)

1997. 12.

교무처장

'98 제1학기 성적장학생 신청 접수

1998학년도 제1학기 교내 성적장학생 선발을 위한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신청기간 : 1997. 12. 1(월) ~ 12. 19(금)

● 신청장소 : 각 학과장기

● 신청서류

- 1. 장학금 수혜신청서 1부(각 학과장기 비치)
- 2. 기타 서류
- ※ 단, 외부장학금(회사나 장학금 포함) 수혜가 확실하며, 성적 장학금 수혜시 이중수혜가 되는 학생은 신청할 수 없음.

1997. 12.

학생처장

'98 제1학기 고시장학생 신청 접수

1998학년도 제1학기 고시장학생 선발을 위한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신청 기간 : 1997. 12. 1(월) ~ 12. 31(수)

● 신청 장소 : 학생처 학생과

● 신청 자격 : 1997. 6. 1 ~ 1997. 12. 31 기간중

● 신청서 : 1. 합격 확인서 1부

2. 성적 증명서 1부

3. 학과에서 시행하는 고시(사법, 행정, 의무, 회계사, 군법무관, 기술, 입법) 1차 이상

4. 합격한 재학생

5. 구비서류 : 1. 합격 확인서 1부

2. 성적 증명서 1부

1997. 12.

학생처장

대 선 후보에게 듣는다 - 서면 질의 · 응답



통일 외교 통일방식

이희창 : 단계적 통일론이나 연방제 통일론은 현실이다. 통일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통일은 성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통일과정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분단의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협력의 활성화이다.

김대중 : 통일은 남북한의 존재를 인정하는 현실주의와 공존정신에 입각하여 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점진적이고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통일의 과정은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통일의 완성성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는 것이 통일비용과 통일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한다. 사회적, 정치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협력과 함께 민간부문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권영길 : 현재 한반도는 남과 북이 제도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은 차이를 가지고 분단 50여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내왔다. 현재 남북이 일방적으로 흡수하는 통일은 남북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통일은 지난 92년 남북이 합의했던 남북합의서를 법적 제도화하여 합의의 이행에 동등하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남북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공동 공영의 원칙으로 통일을 이루겠다.

이인제 : 1국가 2체제 통일방안은 실현가능성이 높고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편함이 예상된다. 통일은 남북한과의 화해협력의 틀을 이루어야 한다. 정치적 부담이나 위화감의 문제는 북한지역을 위해 필요한 통일기금을 적립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이나 외국기업의 북한 투자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북한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인 모든 측면에서 최선의 배려를 다할 것이다.



통일 외교 군사주권

이희창 : 지금의 체제로서는 북한에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리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는 불합리하며, 우리는 북한 정권의 붕괴에 대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우리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시작전권도 우리에

게 돌아와야 한다.

김대중 : 미국과 대등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과 미국의 이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조정해야 한다. 전시작전권 문제에는 있어 북한에 대한 역제책의 건이 한미연합군정체라는 사실을 고려해서, 한, 한국군의 단독전투능력 확보가 민족주의 의인 간의 견지에서 볼 때 중요하다. 한미간의 불협화음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아니라 한미행정협정 등 그간의 불협화음 조약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그간의 불협화음 조약을 전면적으로 무효화하고 재개정하겠다.

권영길 : 한국전쟁 이후 한미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간에 맺어진 조약중에서 대표적인 불협화음 조약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지위를 파는 것은 자주국가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한미간의 불협화음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아니라 한미행정협정 등 그간의 불협화음 조약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그간의 불협화음 조약을 전면적으로 무효화하고 재개정하겠다.

이인제 :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 귀속되어 있는 것은 아직 한국에 조기결번능력이나 한국의 단독적인 대북 전쟁역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아직도 남북한 단독 군사력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수준의 전략발전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이 확보되면 자연히 한국에게로 이전될 것이다.



통일 외교 남북관계

남북한사이에 시기적으로 어떤 정치협상이 무르익어가는지 남북관계의 맥이 너무 두텁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남북경제정상회담을 제의하는 바이다.

김대중 : 현 정부가 출범할 당시 남북관계는 남북기본합의서의 합의되어 상대적으로 아주 좋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통일·대북정책의 철학과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부의 대북정책에 불만을 하고 방향갈등을 심화시켰으며 안보태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리는 남북이 주도하여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주변강대국의 협의를 도출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겠다. 또한 민간부문의 교류, 협력과 기업들의 경제교역을 활성화하고 식량난해결을 위해 인도적으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하겠다.

권영길 : 북한이 가장 어려움에 처해있는 식량난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화해와 신뢰를 회복하겠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정상회담을 정례화하여 민족대단결의 기운을 만들어 내겠다.

이인제 : 북한 중에서도 김영삼에게 조건없는 정상회담을 제의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북한과 점진적으로 경제협력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지원을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우수성을 확신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통일 외교 주한미군

이희창 :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한미간의 전쟁 역지로서는 큰 역할을 했다. 냉전이 해체된 지금 동북아시아에서는 주변에 대한 유권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중국이 군사대국화를 서두르고 있으며 일본의 재무장 가능성이 농후하다. 통일 후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주도권 싸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은 계속적으로 주둔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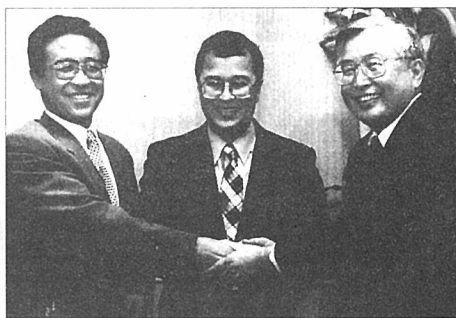
김대중 : 모든 면에서 세계의 최강대국들로 여겨진 동북아시아에서는 평화와 분쟁, 안정과 경쟁의 불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역국가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쟁을 막으면서 평화와 기반 위에서 민족번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는 미국의 힘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미국 측의 발발이 부담 증액요소에 대해서는 현재의 우리의 경제사정의 의지와 엄청난 대미 무역적자 및 대미 경수로 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금액을 미국측과 상의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

권영길 :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기 위한 원칙적으로 철수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에 대한 부담금을 폐지하고 기지 사용료를 징수하겠다. 남북이 평화체제 실현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면 주한미군의 역할은 축소될 수 있다. 남북의 통일을 추진함에 있어 외국군의 주둔은 부담이 되며 외적의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승리는 주한미군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다. 통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외국군의 주둔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인제 :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이유는 미국으로서의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로서는 대북 역지력이 아직 부족한 상태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점령역할이 유지되는 한 주한미군의 주둔을 인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발단이 분단은 계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은 미국의 지역전략상의 목적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발단이 될 것이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통 일 대통령을 바란다

남북문제는 상식으로 풀어야



김영삼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남북관계를 못 본 대통령이다. 차기 대통령은 군사적 대치관계를 종결 평화정착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에게 가장 큰 불행중 하나는 한결같이 지리상 쉽게 간직하고픈 역대 대통령이 없다는 사실일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결코 배놓을 수 없는 것은 전임 대통령이 예외없이 통일에 기여하지 보다는 분단을 고착시키는 방향으로 역할을 한 점일 것이다. 이 점에 관한한 임기를 얼마 안 남겨둔 현직 대통령 역시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남북관계를 가장 못 본 대통령 중의 한명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우리의 후대들은 통일을 위해 결정적인 기여를 한 대통령을 가장 지리상 쉽게 기억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차기 대통령은 이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주기를 바란다.

자금의 정세는 대결을 종식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 통일로 가도록 재촉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의 요구에 부응하면 역사는 후한 점수를 줄 것이요 반대로 남은 관성에 사로잡힌 나머지 정세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역사는 가혹한 평가를 내릴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가오는 시기는 차기 대통령이 통일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동시에 심각한 위기가 아닐까 한다.

분명 시대적 상황은 바뀌고 있다. 분열없는 대결은 남과 북 모두에게 불이익만을 안겨다 준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 작년 3월 즈음 대국의 방북에서 아시아 유럽의 정상들이 모여 두 대륙간의 경제협력의 논의를 하기위한 아세안과 개회된 바 있다. 잘 알려진 사실 그 자리에는 김영삼 대통령도 참석했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 회에서 유라시아 횡단철도 즉 아시아와 유럽대륙을 잇는 철도를 개설하자는 원칙적으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소식이 접한 철도정은 남북의 문산과 북쪽의 장단 사이 끊어진 철도정을 잇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착수하였음이 사실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철도정은 언론에 공개되었다. 국가기관에서 남북이 대결에서 협력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박 세 경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민연맹 정책위원)

외국어연수원생 모집

(약간 10주 과정)

○모집학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노어, 불어, 서만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이탈리아, 브라질어, 아랍어, 독일어 등 24개 외국어

○교육기간: 제33기 1998.2.2(월)~4.18(금), 10주

○대 상: 일반인 및 대학(원)생

○수업시간: 월, 화, 목, 금(주 4일), 1일 2시간

① 일반인반: 19:30 ~ 21:20

(영어 및 기타 외국어)

② 대학생반: 17:30 ~ 19:20 (영어)

○등록기간: 1997.12.29(월) ~ 1998.1.9(금)

※ 문의처: 외국어 연수원 교과과

(☎ 961-4174/5, 962-7119)

한국의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원

외국어연수원생 모집

(약간 10주 대학(원)생 과정)

○모집학과: 영어

○교육기간: 제33기 1998.2.2(월)~4.18(금), 10주

○대상: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타 대학생도 지원 가능함)

○수업시간: 월, 화, 목, 금(주 4일), 1일 2시간

(수업시간: 17:30 ~ 19:20)

○등록기간: 1997.12.29(월) ~ 1998.1.9(금)

선착순 마감

○구비서류: 재학증명서 및 학생증,

사진 1매 (3×4cm)

※ 문의처: 연수원 교과과

(☎ 961-4174/5, 962-7119)

한국의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원

도서관 CD-ROM Networking System 도입 및 이용 안내

도서관에서는 전자도서관 구축의 일환으로 CD-ROM Networking System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안내하시기를 바랍니다.

1. 시스템 구성

가. CD-ROM Server : 서울, 용인 도서관 각 1대
나. 통신 Server : 서울, 용인 도서관 각 1대
다. Application Program : Discport Executive for NT 2.0 Winframe 1.7
라. 기타 관련 장비 : Jukebox, Dial-up MODEM 등

2. 이용 방법

가. WWW의 Browser를 통한 방법
1) 전통신 이용시 : 도서관 Homepage(URL: http://nulsif.hufs.ac.kr)의 "CD Title 검색" 화면에서 이용방법에 따라 검색을 실행한다.
2) Dial-up MODEM 이용시 : 서울 도서관(02-964-6206), 용인 도서관(0335-30-4568)의 전화번호로 접속하여 이용한다.
나. Client Program 설치 이용 : 빈번하게 이용하는 CD-ROM Title이 있을 경우는 도서관의 도움을 받아 해당 Title의 검색 Client Program을 자신의 PC에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다.

3. 이용할 수 있는 CD-ROM Title

가. 서지학술정보
1) ABI/INFORM Global 등 18종
2) 어기의 Title은 WWW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나. 국내 학회지
1) 한국경제학회지 등 9종
2) 국내 학회지 Title은 "장기간행물"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다. 사전, 일람, 기타
1) Britanica Encyclopedia, 조선왕조실록 등 8종
2) 어기의 Title은 "참고자료실"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라. CD-ROM Title 목록은 도서관 Homepage에 접속하면 볼 수 있다.

1997. 11.

도 서 관 장

새시대 새총장 새외대

△학교비밀리에선선상 및 집행권 △교직원 임명 및 보직임면 △교과운영 및 학사운영의 권한 △대학 행정조직의 구성 및 운영권한 △교수 및 정교와 학생자치활동 지도권한

시립학교법 또는 학교법인정관(준칙), 각 대학 학칙 상으로 보장된 총장의 포괄적 권한이다. 과연 '대학의 행정을 총괄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총책임자'라는 위상을 부여할 만하다.

지난 3월(수) 우리대학 교수협의회에서는 총장후보 5인을 선출하고 오는 15일(월)에는 그중 2인을 후보로 최종 확정한다. 마지막으로 그 중 1인이 재단의 임명으로 총장이 임명된다.

총장선거를 맞아 본보는 외대인이 총장에 기대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얼마나 총장이 이해했는지 등으로 최대총장의 과제와 원 안병만총장에게 평가, 총장선출방식에 대한 의견 등을 서울·용인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

편집자

외대, 이것이 취학하다

대학에서 총장의 지휘와 주된 역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5%가 학교를 대외에 홍보하는 역할, 34%가 학내 제구성원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편, 학내행정의 총지휘·집행자라고 답한 사람은 예상외로 24%뿐이었다. 기타응답에서는 '학교발전에 반했고 나서의 사람' '면학분위기 조성' 등 현재의 역할보다는 앞으로의 바람을 담은 응답이 많았다.

이를 반영하듯 외대총장이 가장 주목해 달라는 부분은 묻는 질문에서 77%라는 다수가 '교육환경개선'이라고 답해 외대인들은 현재의 교육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교육환경을 포함, 그 외에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학내민주주의', 재단(학교법인) 관련부분 등에 대한 생각을 어떤가? 여기서도 '학교발전에 반했'이나 재단의 투자가 많고 경영권과 재산권의 분리(15%)보다는 학생들의 피부에 와닿는 문제인 '교육내용의 질적향상(32%)', '교육환경개선(27%)', '대학위생개선(18%)'을 요구하는 대답이 훨씬 많았다. 특히 재단관련 답변에서는 '외대학부투쟁의 근본적 대안이 '재단정립금'으로 지적되어왔고, 재단이 학교경영에 관여하는 '전령'이 각 학교에서 있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

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여 학생들이 이 문제를 깊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전체적으로 용인보다는 서울이 한 안병만총장과 교육발전사업이나 학생들의 권리장전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많았다.

안병만총장의 4년은

안병만총장이 다음 총장선거에 출마하고 예견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지금 안총장에 대한 평가는 △학내민주주의와 △재단으로부터 독립 △학교발전 △학생복지 4개영역에서 전체응답자의 95% 이상이 70점이하라고 대답하였다. 이 질문에서도 서울보다는 용인학생들이 후한 점수를 내었다. 4개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영역은 학교발전 부분이었다. 특이한 대담중에는 0점에서 100점까지의 답단위에 -10점 간을 만들어 대답한 자도 있었다.

안병만총장 재임시기에 있었던 수많은 외부부기 즉 최우수국회대 선진, 교육개혁위원회대선진, 대외협력평가인정제(대통령)에서의 높은 점수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외대의 교육여건이나 특수성을 볼 때 '적절한 평가'가 받아들인 사람이 3%. '교육여건은 미비하나 발전가능성을 고려하면 비교적 적절한 평가'라고 답한 사람은 28%였다. 반면 '교육여건도 좋지않고 용으로 느껴지는 발전이 없음에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의문스럽다'는 반응은 51%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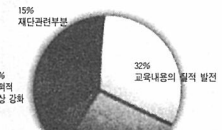
기타응답에서는 '안병만총장의 뛰어난 리더십', '실용적인 외대 말해간다' 등의 일관적인 대답이나 '이공계'에 대한 학교적응이 미약하다, '학생들이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발전의지가 필요' 등 보완점을 제시한 것도 있었다.

한편 용인만의 특수한 문제점이라고 지적되는 서울출세율과의 관계문제의 경우, 제2캠퍼스라는 이유로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이 여러차례 제기된 바 있다. 안총장도 이에 대해 1993-94년 출마시 이후에 대해 서울·용인의 독립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대한 용인학생들의 평가는 57%가 '독립의 노력을 느끼지 못했다', 29%가 '노력은 보였으나 미진했다'고 답했다. 이는 아직까지 행정업무가 서울에 많이 집중되어있고, 서울과 중복되는 학과의 경우 정교수 비율이 낮은 등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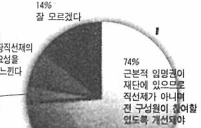
"외대답게 만들 총장을 우리 손으로 뽑아야"

가장 불만스러운 부분 교육환경 77%
총장선거과정에서 학생·직원 입장 제기 반영돼야

<외대가 가장 중시적으로 들어갈 과제>



<현재 총장 선출 형태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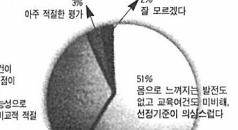
총장선출방식은

표1은 지난 2월(화) 발표한 직원노동조합의 총장선거에 대한 입장이다. 현재의 총장선출방식은 크게 두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결선투표에서 후보 20명중 10명을 재단이 최종임명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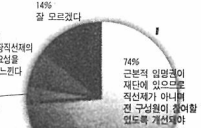
이에 대해 '근본적인 임명권이 재단에 있으므로 직선제가 아니고 따라서 전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74%를 차지, 압도적이었다고 '후보만이라도 추천할 수 있도록' 문제제기했다. '총장직선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은 각각 4%와 8%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였다.

두 번째 지적은 총장은 교수들만의 대표가 아니라 학교전체의 대표이고 그러므로 직원·학생의 참여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기에 대해 교수협의회의 반응은 후보들이 직원·학생을 선출할 자격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학생·직원의 의견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이 38%였다. 그러나 '학생·직원의 의견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없다' (2%)는 의견도 있었다. 중도적 의견으로 '교수협의회의 지지도 타당함만 극복가능하다'가 59%를 차지했다.

<최우수 국회대 등 외부평가에 대한 생각>



<서울·용인 독립체제>



현재의 과오를 극복하려면

결국 외대학생들은 '외대에는 교육, 대외협력'을 만들어갈 총장상을 가장 많이 바라고 있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는 데는 무엇보다 학내 제구성원들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시립학교법'이 시립재단의 총장임명권을 인정하고 있고 우리학교에서도 총장후보선출과정에 관한 모든 규칙은 교수협의회의 회의에만 근거하고 있어 학생·직원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가장 시급한 것은 '총장직선제'를 법제화하는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학자투쟁이 그렇듯 구성원들의 정복적지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총장선출방식의 문제점이 구성원들 사이에서 폭넓게 논의되고 그에 대한 입장을 함께 제기함으로써 총장선거과정에서 전체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일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한국대학교총학생회연합이나 전국대학교노동조합연맹 등 전국적 차원의 개선노력이 병행되어야 실질적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부

표1 <총장후보 선출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한국외국어대학교노동조합은 현 총장의 임기 종료시한을 불과 4개월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12월 3일 교수협의회 단독으로 총장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심상한 유감의 뜻을 표시하며 다음과 같이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이번 선거출하는 새로운 총장후보는 교수들만의 후보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둘째, 총장선출 방식 자체가 진정한 대학의 자치를 실현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대학내 전체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학교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선출된 총장후보자로도 총장이 되는 권리와 상징 그리고 권한 등에 대한 합법성이 부여되며, 따라서 재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총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학교당국은 1996년도 단체협약을 통하여 노사합의한 '총장후보 선출위원회' 구성 (단체협약 제 123조)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회고부당한 총장선출 방식에 대한 어떤 견해도 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학교당국의 독단적인 대학운영을 분명한 반대한다. 아울러 교수들의 독단적인 총장선출도 분명한 반대한다. 직원은 더 이상 교수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행정관리보조원으로 명명만 받아 움직이는 피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기능과 역할을 확실하게 행사하는 살아 움직이는 학교의 한 주체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학교당국, 교수협의회에 총장선출 방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학교당국과 교수협의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방외대개혁이 참여하는 총장후보 선출위원회를 구성, '민주적 총장선출 방식'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총장후보를 선출하여 모든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고 재단이 되기를 중심으로 제안한다.

1997. 12. 2

전국대학교노동조합연맹 한국외국어대학교노동조합

검찰의 이적행위

○"IMF 구제금융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경제사민지로 전락하여 민심이 위축중"인 상태인데, 이시기에 검찰이 대선을 앞두고 이렇듯 교육, 사법개혁, 유충준 교수에 대한 이적행위, 적용으로 말미암아 공헌이 국권이 분열되고 불필요한 노고를 기울여야 하는 국력소모행위야말로 진정한 '적'을 이용해 한 다는 이적행위가 아닌가.

(석)

○"클린턴의 오른팔로 정권인수위원장을 지낸 버는 조안이 이 회장에 대해 단독면담을 요청해 대선과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경제의 위기극복방안 등에 관한 얘기를 했다는데, 이 소식을 접한 우리의 크로니클자는 한 말 "정신과계를 고안하여 거 말거도 유분수지. 미국! 사 람 잘못 끝났어"

(송)



○"총장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 선거장에 나타난 우리의 클로니클자는, 아무런 휘휘 돌리다봐도 죄다 교수투쟁을 의미하며 서 있었다. 갑자기 나타난 '민주적 총장선출'이라고 써진 티를 입은 노조군, 대강당 문을 박차며 하는 말, "배짱!"

(은)

○"지방출신의 크로니클자. 기숙사에 들어가고 싶으나 성적이 좋지 않아 걱정을 하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한 한방이면 OK라. 이에 기숙사에 살고픈 크로니클자, 학생들에게 술을 보냈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더라. 어느날 서울에 사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기숙사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긴 크로니클자, 학생들 술을 따라가니 학생들 이름이 적힌 양주병이 가득하더라.

크로니클자 잘 "저도 술 보냈는데도" 하니 학생 받아치며 "소주는 안돼"

(희)

양주와 기숙사

비둘기철판

왕산골

□ 수고하세요

· Esperanto여러분!
올한해 정말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기말고사 잘 보시고 멋진 겨울방학 되세요.

(최소부 원)

□ 첫습니다

· 11월 28일(금) 밤 10시~11시 사이 117번 버스안에서 남측 학기말 습득하신분 연락주세요.
연락처: 012-1888-4863
0335-730-4566-3324

□ 알립니다

· 화학과 4학년 졸업 M.T 갑니다.
때: 18일(목) 오후부터 20일(토) 까지
곳: 서해대 해수욕장과 서해유지
금액: 25000원(94 박희용 과대과제)

(화학과)

□ 합니다

· 참돔이 사랑과 연하 모포지
때: 21일(일)-23일(화)
곳: 용인대 외대 수련원
회비: 25000원
만나는 장소와 시간: 서울역 광장에서 오후 12시 30분

(참돔이 사랑하)

이문벌

□ 알립니다

· '외대'교지 41호가 10월(수) 교정 곳곳에 배포됩니다.

학우들의 관심과 비판을 바랍니다.
이번학기 교지제작에 보여준 학우들의 교지에 대한 관심을 발원으로 거듭나는 외대 교지가 되겠습니다.

(세로로 시대 진보의 길을 여는 '외대'교지 편집위원회)

· 외대 경단에서는 겨울방학 전통무예학교를 열고자 합니다.
원격 운동하고 싶으신 분은 연락주세요.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때: 1997년 1월 5일~2월 23일(월,수,금)
곳: 대운동장
연락처: 015-8397-5696

(외대경단)

□ 축하합니다

· 서양어대 학생회-차재훈(포어 94) · 정기용(영어 95)
영어-안재철 · 김윤기 · 독일어-김하영 · 박민숙
서양어-홍정훈 · 성기용 · 포르투갈어-장대훈

스칸디나비아-박선호 · 네덜란드어-이정은
이태리어-윤지민 (다음주 선거)
32대 학생회를 이끌어갈 간부님들 당선 축하하고요,
98년도에도 열심히 사십시오.

(32대 사양어대 학생회(간))

· 타이어와 과학실험장이 된 신선실 인사 축하합니다.
부디 멋진 타이어과를 만드십시오.
수고도 하시고요.

(간 아이)

· 행정학과 과 학생회장이 되신 손준민학원
당신을 축하하고, 내년도에도 열심히 사십시오.

(행정학과 학우 일동)

· 31일(수) 석의의 2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내년에는 더 멋진 아이가 되거라.

(동기들)

'비둘기 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83, 4152, 4466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0335) 30-4112

용인캠퍼스

대학	계열	모집단위	입학 정원	모집 인원	특기 및 특별전형(25%)				합계	비고		
					일반	추천	특기자	계				
연세 대학	인문	인문대학 (화학전공· 사학전공· 언어전공)	120	120	6			6	114			
서울 대학	자연	열역학	120	120	18		6	6	30	90		
		불꽃물리	80	80		4	4	8		72		
		노스물리	50	50		4	4	8		73		
		자연과학	50	50		2	2	4		46		
		이론물리	50	51		4	4	8		72		
		화학	50	51		2	2	4		49		
		물리	40	40		2	2	4		38		
		지구과학	40	40		2	2	4		38		
		환경과학	40	40		2	2	4		38		
		지구과학	40	40		2	2	4		38		
고려 대학	인문	중국어	50	50	8	2	2	12	38			
		일본어	40	40		2	2	10	30			
		영문학	40	40				2	38			
		영어·인도네시아어	40	40				2	38			
		태국어	40	41				2	39			
		아프리카어	40	40				2	38			
		인도네시아어	30	30		1		1	29			
		경제학										
		인문	(무역학과 경제학과 경영정보학과)	140	142					7	135	
		한양 대학	자연	수학·통계학부 (수학전공· 정보통계학전공)	80	80						80
물리·화학부 (물리전공· 화학전공)	90			90						90		
환경·미생물학부 (환경과학전공· 미생물학전공)	100			101						101		
컴퓨터및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학전공· 정보통신학전공)	110			112						112		
전자·제어공학부 (전자공학전공· 제어공학전공)	100			99						99		
신입공학	50										50	
수계	1,791			1,791	32	60	24	116	1,675			
총계	3,510			3,510	240	133	58	291	3,508			

별 입학정원의 10% 이내(103명=서울 51명, 용인 52명)에서 선별
(다 시번대학 제외)

(인, 서, 김, 대)

- 고통학과 정규 교육과정은 1년치 수능 이수한 사실이 있는 학생이나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상 3학년이상이 수능 이수한 사실이 있는 학생으로 해당 외국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할 수 있는 학생은 받은 점수
- 다. 수능 성적 2점 차이(사제대 제외)는 대학학부합격시험 성적이 높은 경우 정액 15% 이내(수능 백분율 기준 85.000점)간 차
- 와 출제경로에 관계없이 학적은 대학학부합격시험 성적 동일점열위 5% 이내(수능 백분율 기준 75.000점)인 자
- 마.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결과와 관련된 개별에 지원한 자 있음
3. 면접고사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함
4. 가산점 부여
- 교과부 주체 전국고등학교생 외국어 및 수학·과학 경진대회에서 “동상” 수여에 입상한 학생은 다국어 관련 가산점을 부여함
- ◆ 외국어 관련 경진대회 입상자 : 수능시험 외국어영역(80점) 취득점수의 25% 가산
- ◆ 수학·과학 관련 경진대회 입상자 : 수능시험 수학·탐구 1영역(80점) 취득점수의 25% 가산
5.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연동된 가산점 부여 : 수능 외국어영역의

전 교과목의 학업성적이 "수" 이상인 학생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

- 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없는 특수외국어는 해당 언어국에서 중학교 또는

1. 학교 생활기록부가 있는 자의 반영방법

※ 해당영역
국어교과 : 언어영역 수학교과 : 수리탐구 I 영역
영어교과 : 외국어영역 사회, 과학교과 : 수리탐구 II 영역

'98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등급표

등급	제1영역 및 수능계열영역 성적 백분율	제2영역의 백분율	제3영역의 백분율	수능백분율의 백분율
1	100% ~ 70.0%	30.0	12.0	40.0
2	69.9% ~ 50.0%	25.0	10.0	35.0
3	49.9% ~ 30.0%	18.0	7.0	30.0
4	29.9% ~ 10.0%	12.0	5.0	25.0
5	9.9% ~ 30.0%	10.0	4.0	20.0
6	29.9% ~ 10.0%	8.0	3.0	15.0
7	9.9% ~ 30.0%	5.0	2.0	10.0
8	29.9% ~ 10.0%	3.0	1.0	5.0
9	9.9% ~ 30.0%	2.0	0.0	0.0

〈출석 성적〉

등급	중점영역 및 "리" 및 "2" 중점영역	"리" 2부 중점 및 공인21핵 중점영역	"리" 2일 이전 중점영역	합 수
1	0 - 2	0 - 1	0	01.00
2	3 - 6	2 - 4	1 - 2	38.00
3	7 - 15	5 - 10	3 - 5	38.00
4	16 - 31	11 - 20	6 - 10	32.00
5	32일 이전(34년전)	21일 이전(24년전)	11월 이전(21년전)	36.00

1000

- | 학년 | 영역 | 비율 | 점수 | 비고 |
|------|------|------|-----|-------------|
| 1, 2 | 교과영역 | 90% | 360 | 생활
기초부 |
| 3학년 | 출결사항 | 10% | 40 | 학교생활
기초부 |
| 계 | | 100% | 400 | |
3. 교과목의 범위와 방법
- 가. 범위와 방법
- 1) 1학년은 중점 생활기초부에서 나타난 교과목의 범위 또는 계열적지를 반영함
 - 2) 2,3학년은 학교생활기초부에서 나타난 교과목을 계열별로 수월성이 선택한 3과목을 다수와 같이 반영함.
- 내용준거 : 국어, 영어, 사회(국사)와 교과영역을 지원하기 위한 교과영역 별로 1과목씩을 선다 (예 : 국어(국어어법영역), 영어(영어영역), 국사(사회영역))
- 지원준거 : 국어, 영어, 사회 교과영역을 지원하기 위한 교과영역별로 1과목을 선다 (예 : 수학(수학영역), 영어(영어영역), 물리(과학영역))
- 다. 반영방법
- 1) 1학년은 중점 생활기초부에서 국사(국사)와 국사 : 계열적 지체부분을 싣기 10%에서 3과목을 싣는 90%으로 1과목에 한함(수 : 1부)
 - 2) 2,3학년은 교과영역에 선정한 교과목의 과목별 지체부분을 싣기 10%에서 100% 까를 싣는 90%으로 3과목에 한함(수 : 1부)
 - 3) 2,3학년 학생생활기초부 지원한 과목영역에서 지체 : 중점 : 1과목에 대해서도 싣는(대부분 사제비 대학에서는 지체 : 수 : 1부)으로 1과목에 한함(수 : 1부)

4) 특수목적고(외국어고, 과학고) 졸업예정자가 동일계열에 지원하였을 경우에는 대

- 학수능력시험(수업별 학분)의 경우에 따른 석회생물학기목의 환산점수 부여
4. 1. 2. 3학년 출결성적의 반영방법
1. 2. 3 학년 출결성적은 123학년 총 결석일수(0월-15일)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여 환산점수 부여
5. 석회생물학기목점수 산출방법
- [1학년 계절학기 학분을 환산점수] × 0.2 + [2학년 선택교과목의 석회생물학을환산점수] × 0.3 + [3학년 선택교과목의 석회생물을 환산점수] × 0.5 + [123학년 출석성적]

II.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의 반영방법

1. 보학년도 이전 고교 졸업자(3학년 3학기 졸업자)의 반영방법
 - ① 2학년 4학기부터 3학년 3학기까지의 학년, 계절별 석차출결률의 환산점수 + 3학년 4학 기 졸업자의 3차 석차출결률의 학년, 계절별 학차출결률에 의한 환산점수
2. 보학년도 이후 고교 졸업자(3학년 3학기 졸업자)의 반영방법
 - ① 고교졸후 2년 이상 경과(3학년3학기3차 졸업) 이전 졸업자는 본인이 두 가지를 택할 수 있다
- ① 12학차 중 가장 출결률목표 제정후의 목표출결률에 의한 환산점수
- ② 12학차 중 가장 실적의 제정후 목표출결률에 따른 교과출결률목표부의 환 산점수 적용(이유없음)
3. 졸업자(3학년 4학기)의 고교학력조사 이수자, 교과교육소신위원회 교육과정 이수 자, 특수교육교과 출결률제 지정자
 - 대입서류작성시 실적의 제정후 목표출결률 점수에 따른 목표출결률목표부의 환산 점수 적용(이유없음)
4. 보학년도 이전 고교교과 졸업자 학력면제 대상자(2학년 3학기 ~ 4학년3학기) 1학년 1학기, 특수교육교과 졸업자 및 환산점수 제정후 고교교과 3학년 3학기 졸업자 1학 년 3학기, 3학년 4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실적의 제정후 목표출결률에 따른 목표출결률목표 부의 환산점수 적용(이유없음)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입시상담실 TEL : (02)951-4481~8
ARS입시상담실 (02)951-1392~5
서울캠퍼스 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교무처입학과 TEL : (02)951-4471~2
FAX : (02)959-0332
용인캠퍼스 409-791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산89
교무처교무과 TEL : (0335)30-4023, 4024 FAX(0335)33-1681
이티넷 입시정보 <http://www.hufs.ac.kr>